

'담대한 미래, 전주다움으로 도약'

전주시 기획조정국, 4대 역점분야 15개 전략사업 추진

전주시가 올 한해 시민들에게 최첨단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할 '전주형 바이오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야호 전환교육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놀이터 도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으로 담대한 미래를 열기로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은 24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4대 역점분야, 15개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담대한 미래, 전주다움으로 한 번 더 도약'을 목표로 한 기획조정국 4대 역점분야는 △코로나19 이후 혁신성장 기반 구축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도시' 구현 △전주형 창의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야호 주인공이 되는 놀이터 도시 조성 등이다.

먼저 시는 일상회복과 미래경제 주도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코로나19 이후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또 전주형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주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의료·행정이 힘을 모아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의제 선정과 네트워크 구축, 마중물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힘을 결속한다.

또한 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도시' 구현에도 힘을 쏟는다. 우선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사회·환경·경제·문화 분야에 걸친 전주형 지속가능발전목

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이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관협력을 통해 환경적 윤리적 영향을 강조하는 'ESG' 가치를 지역경제 생태계에 확산시켜 지속가능발전의 공감대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인구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전주형 인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이기로 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전주의 기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주시 민주화운동기록관 건립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일제잔재 청산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스스로 찾고 배우는 전주형 창의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야호전환학교를 통해 전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로컬프로젝트 △학교 연계 특화 프로젝트 △자유학년제를 연계한 전주사람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주·교육지원청·마을·지역사회 등 교육 주체들 간 '전주다움 교육'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청소년의 행복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산권 야호학교 성격의 남부권 청소년센터와 예코시티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을 새로 건립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동아리,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소외받는 청소년에 없도록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꼼꼼

히 하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놀이터 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 친화적 놀이공간인 '야호 생태 놀이터' 등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정형화된 공간이 아닌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덕진공원 야호 맘껏 숲 놀이터 △야호 생태숲체험장 △야호 생태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생태 놀이터의 경우 이미 조성된 호동골생태놀이터 등 15개 놀이터에 이어 올해는 평화어린이 공원에 추가로 조성된다. 야호 생태숲체험장에서는 5~7세 아동들이 사계절 변화하는 숲을 충분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숲체험 종일반'도 운영된다.

이밖에 시는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 '야호놀이 어깨동무'를 통한 놀이문화 확산 △2022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 운영 △놀이격차 해소를 위한 놀이터 환경개선 △놀이인식개선 교육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등을 추진한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2022년은 실질적인 일상회복의 원년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시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주다운 도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4대 분야 설 연휴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시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설 연휴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시민들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별방역 △민생경제 활성화 △시민안전 편익증진 △방역대책 편익증진 등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의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비상대응반과 보건소 비상진

료대책 상황실, 역학조사반, 화산·덕진선별진료소를 정상 가동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지난 21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봉안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시는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 16개의 중점관리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분산 추진하고, 복지시설·소외계층 지원 행사도 비대면·소규모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연휴 기간 △대중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저녹스(低NOx)보일러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보일러를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도 줄일 수 있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3450가구로, 시는 이날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저녹스보일러로 교체시 일반 가구에는 1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는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생활법률지원단장 위촉

전주지역 35개 동 배정 법무사 통해 생활법률 상담 연결 역할

전주시의회는 최근 강동화 의장이 시민의 원활한 생활법률 상담을 위한 생활법률지원단장에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장은 전주지역 35개 동에 배정된 법무사를 통해 일반 시민이 생활법률 상담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전북 지방법무사회는 지난 21일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차원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5개 동에는 120여 명의 '우리동네 법무사'가 배정돼 시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동네에서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준다.



강동화 의장은 "법을 전문단이 동별로 배정돼 시민의 생활법률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시의회도 원활한 생활법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통합돌봄 정책 방향성·개선사항 논의

시·전북도 사회서비스원, 복지·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의견 나눈

전주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4차년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국의 복지·돌봄·의료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대표 서양열)은 24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국내 복지·의료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 집담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집담회에서는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박세진 덕진보건소 진료민원팀장이 각각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중간결과 보고'와 '전주시 건강·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추진돼온 전주시 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온 이석원 교수는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전주시는 체계적인 인프라와 효율적인 자원구성·운영, 통합돌봄 서포터즈를 활용한 생활영역 지원 등 전주시민의 독특한 혁신적 집행요소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신건강, 사회관계, 삶의 질 영역 전반의 만족도를 보였고 미스매칭이 꾸준히 개선됐다"면서 "다만, 단기체감이 어려운 신체건강 영역에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변재관 전주시 통합돌봄 총괄자문관을 좌장으로 김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와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

수,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패널들은 지난 3년 동안의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향후 반영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 그간 선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온 전주시가 전국민돌봄과 통합돌봄의 전국화를 위한 전초기지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로 4년째 지역 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오며, 기존 노인분야 사업을 장애인과 정신질환까지 확대하는 등 분야·대상·지역적 범위를 점차 넓혀왔고 민관협력과 지역재생,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현재 △보건·의료 △복지돌봄 △주거 등 4개 돌봄 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서양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집담회를 바탕으로 기존 전주시민들을 위한 돌봄체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라북도 도민들에 대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전북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집담회는 우수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그간 열심히 달려온 전주시 통합돌봄을 성찰해보고 정책의 방향성과 대응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올 한해 전주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더 좋고 편안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은 24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국내 복지·의료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 집담회'를 개최했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